



영화 '미라클'·'국가대표'의 한 장면(사진 왼쪽부터)

동계올림픽 소재 영화4편 '미라클'·'쿨러닝'·'독수리 에디'·'국가대표'

인간승리의 현장 스크린으로

흔히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 일컫는다.

흥미롭고 감동적이며, 무엇보다 예측 불가능해서다.

그래서일까 각본이 가장 필요한 장르인 영화는 적극적으로 스포츠에 구애한다

스포츠의 실제 명승부나 인간 승리의 이야기를 극대화해 스크린에 풀어 놓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1일 극적으로 남북한 단일팀을 이룬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만일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까지 획득한다면 국내외 영화계는 이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 것이다.

언젠가 그 영화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계올림픽을 소재로 한 국내의 영화는 그간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 '미라클(Miracle)'

'1980 레이크 플라시드 동계올림픽'을 배경으로 동계올림픽 사상, 미국 스포츠 사상 가장 극적인 경기로 꼽히는 미국과 소련의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를 소재로 한 2004년 할리우드 영화다

게빈 코코너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커트 러셀, 패트릭스 클라슨, 노아 에머리 등이 주연했다.

동서 냉전이 한창이던 1980년 미국 레이크플라시드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가운데 전 세계 아이스하키를 15년간 지배해온 최강 소련 대표팀을 상대로 최약체 미국 대표팀이 무모한 도전을 펼친 실화를 영화화했다.

올림픽 7개월 전 미국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감독에 오른 허브 브룩스(쿠트 러셀)는 2002 한일 월드컵의 한국 대표팀 감독 거스 히딩크처럼 실력 위주 선발과 체력 중심 훈련

으로 팀을 만들어간다.

대학 선수로 구성된 미국은 대회 직전 열린 소련과의 친선 경기에서 3대 0으로 완패했다. 그러나 올림픽에서 세계 3위 스웨덴과 비기며 자신감을 얻은 미국은 세계 2위 체코를 이긴 여세를 몰아 핀란드, 루마니아, 서독 등을 모두 물리치고 마침내 소련과 재격돌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패밀리(가족)'이라고 칭하며, 실력이 부족해 당시 최종 엔트리였던 20명에서 탈락할 수는 있으나 새로운 선수 때문에 6개월간 지옥 훈련을 해온 선수가 출전 기회를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맞선다. 브룩스가 선수 영입을 철저히 하지만 좋은 정찰 가족처럼 기적을 만들어 간다.

◇ '쿨러닝(Cool Runnings)'

냉전 시대 마지막 동계올림픽으로 통하는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을 배경으로 열대지방인 자메이카 봅슬레이 대표팀의 도전기다. 존 터틀타움 감독이 연출해 1993년 개봉했다.

육상 100m 선수인 데리스 배녹(데온)은 1988 서울 하계올림픽' 출전을 꿈꾸지만, 우연한 사고로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한다.

실망한 데리스는 우연히 단거리 선수가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종목에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단짝 '상가'(더그 E. 더그 분)와 함께 자메이카에 정착한 양년의 금메달리스트 '아이브 블리처(존 캔디)를 찾아가 코치가 돼 달라고 간청한다.

'주니어'(로울 D. 루이스) '올 브레너'(매리 요버) 등 역시 탈락한 단거리 선수들을 모아 팀을 이룬 이들은 얼마간 지상 훈련을 한 뒤, 주니어가 차를 팔아 마련한 돈을 갖고 무자정 캘거리로 떠난다.

◇ '독수리 에디'

역시 캘거리 동계올림픽을 무대로 놀라운 도전을 펼친 선수의 이야기다.

배우 출신 텍스터 플레처 감독이 연출하고 태런 에저튼, 휴 잭맨, 크리스토퍼 윌킨 등이 주연했다. 국내에서는 2016년 4월 개봉했다.

◇ '국가대표'

일본에서 열린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배경으로 한 한국 스키점프 대표 선수들의 이야기다.

하정우, 김동욱이 함께한 작풍이다. 2009년 7월 개봉해 신드롬을 일으키며 약 849만 관객을 모았다

1996년 전라북도 무주, 동계올림픽 유지를 위해 정식 종목 중 하나인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이 급조된다.

전(前) 어린이 스키 교실 강사 '방종삼'(상봉일)이 대표팀 코치로 임명되고 그의 간언이살에 양년에 스키를 타본 멤버들이 모여 대한민국 최초 스키 점프 국가대표팀이 결성된다.

주니어 알파인 스키 미국 국가대표였다 친모를 찾아 한국에 온 입양인 '남'(하정우), 나이트클럽 웨이터 '홍철'(김동욱) 고깃집 아들 '재복'(최재환) 할머니와 동생을 돌봐야 하는 소년 가장 '칠구'(김지석) 등이다.

대표팀이라지만, 불모지인 것들... 변변한 연습장도 없이 점포대 공사장을 전전한다. 제대로 된 보호장구도 없어 오토바이 헬멧, 공사장 안전모 등을 대신 쓰고 훈련한다.

천신만고 끝에 나가노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게 된 대표팀은 메달 획득 꿈에 부풀다 그러나 한국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끝내 탈락하게 되고, 창설 목적이 올림픽 유치였던 팀은 해체 위기에 처한다

이들은 꿈을 향해 날아올 수 있을까.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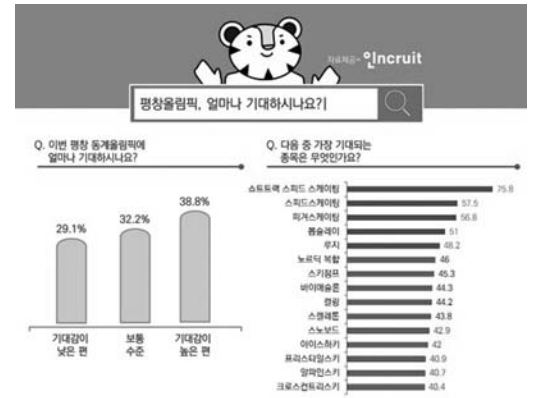
국민 38% "평창올림픽 기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관심 있는 종목으로는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이 꼽혔다.

22일 인크루트의 두잇서베이가 성인 남녀 3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가 38.8%, '없다'는 29.1%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32.2%였다.

평창올림픽 관람은 'TV로 즐기겠다'(5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 및 모바일로 동영상을 볼 것'(25%), '직접 찾아가 관람할 것'(7%)로 등의 순이었다.

직접 관람하지 않는 이유는 '비싼 티켓 값'(100점 환산점수 중 71.5점)이 1위에 올랐다.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음'(69.9점), '비싼 숙박비'(62점), '불편한 교통'(53.9점), '신체적·체력적 한계'(48.4점) 등의



의견도 있었다.

총 15개 종목 중 쇼트트랙(100점 환산점수 중 75.8점)과 스피드 스케이팅(57.5점)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올림픽에서 예상 국가순위 1위는 미국(22%)이 우리나라는 7위로 전망됐다.

/뉴시스

정민수·이다영, V-리그 올스타전 최고 ★ 등극

올 시즌 올스타전 최고의 별은 정민수(우리카드)와 이다영(현대건설)이었다.

정민수는 21일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7~2018 V-리그 올스타전에서 남자부 MVP로 선정됐다.

기차단 투표 총 23표 중 12표를 얻어 11표에 생애 첫 MVP의 영예를 안았다.

리베로 포지션을 소화하며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정민수는 숨겨진 끼를 맘껏 뽐내며 한을 제대로 풀었다.

정민수는 평소 할 수 없었던 스파이크와 블로킹에 적극 답하며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포인트를 올린 뒤에는 리듬에 몸을

맡기며 분위기를 달궜다.

파다르는 남자부 세레머니상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23표 중 16표를 휩쓸었다. 토끼 귀가 달린 머리띠를 하고 여자부 경기에 난입한 파다르는 관중석으로 넘어가 팬에게 서브 기회를 알보

하고 자리에 앉아 느긋하게 이 장면을 지켜보기도 했다.

여자부는 이다영(현대건설)이 가장 빛났다.

23표 중 20표를 쓸었다. GS칼텍스 외국인 선수 듀크(GS칼텍스)는 이다영의 세레머니상 4연패를

지지했다. 9표로 이다영과는 1표차였다.

/뉴시스



21일 오후 경기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7-2018 V-리그 올스타전 경기에서 MVP에 등극한 이다영(현대건설)과 정민수(우리카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흥민 70분 출전... 토트넘, 무승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 시즌 12호 골 도전에 실패했다.

손흥민은 22일(한국시간) 영국 사우샘프턴의 세인트 메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EPL 24라운드 사우샘프턴전에 선발 출전해 후반 25분까지 70분을 소화했지만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최전방 공격수 해리 케인을 돕는 2

선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컨디션 난조를 보였다. 부지런한 움직임으로 기회를 엿봤지만 교체로 나올 때까지 슈팅을 1개도 기록하지 못했다.

미드필더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컨디션 저하로 결장한 게 공격진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토트넘은 케인의 동점골로 겨우 1-1 무승부에 만족했다.

선제골을 넣은 건 사우샘프턴이다.

토트넘이 전반 14분 라이언 버트랜드의 크로스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자책골을 기록했다. 토트넘은 주도권을 내

줬지만 4분 만에 균형을 맞췄다.

전반 18분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케인이 정확한 헤딩슛으로 사우샘프턴의 골네트를 갈랐다.

영국축구통계사이트 후스코어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6.1점을 줬다.

손흥민은 오는 28일 뉴포트와의 잉글랜드축구협회(EFL)컵에서 시즌 12호 골에 다시 도전한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